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5월 31일(주일) 제1051호

2015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여호수아 캠프 막 오른다!



지난해 서빙고에서 열린 교사강습회.

6월 6일 시작 ... 국내 캠퍼스 및 해외비전교회에서 개최 주일학교 교사, 여름캠프 및 아웃리치 준비하는 성도 대상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여호수아 캠프'가 막 오른다. 6월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13일 부천, 수원, 대전 온누리교회, 2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해외비전교회에서도 교사강습회가 실시된다.

6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청도 온누리교회, 6월 28일부터 3박4일 동안 상해 온누리교회, 6월 28일부터 2박3일 동안 대련과 단동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노희태 목사(차세대본부장)는 "올 여름 수많은

선교지에서 여호수아 캠프를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들을 초대한다"면서 차세대 교사와 캠프 및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차세대지역본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여름사역 중 하나인 전국여름성경학

교 교사강습회는 주일학교 교사와 캠프 및 국내외 아웃리치(여름성경학교, 워십댄스)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등록비를 입금하고 차세대본부로 전화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3-60104

예금주: 온누리교회어드벤처

문의: 02-3215-3521, 02-570-7436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2015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

6월 23~25일 서빙고 분당

2015 마리아행전 큰모임 '하나님의 소원'이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분당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목사,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이덕주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이정아 사모(물푸레나무 청소년센터), 천중호 관사(부산가정법원), 하광민 목사(생명나래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2015 마리아행전 큰모임은 3일 동안 주제를 정해 부르짖는다.

23일은 나를 향한 소원(가정, 여성, 다음 세대), 24일은 교회를 향한 소원(교회와 사회), 25일은 열방을 향한 소원(낮은 곳, 통일, 북한)이 주제다. 선착순 모집한다. 행사당일 접수는 없다. 회비 2만원(6월 14일까지 납부할 경우)

문의: 02-3215-3355

아웃리치 안전교육 실시

6월 5일 서빙고 두란노홀 12일 양재 온유홀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1차 교육은 6월 5일 금요일 19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2차 교육은 6월 12일 19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실시된다. 강사는 김진대 목사(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다.

아웃리치 안전교육에서는 아웃리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을 미리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올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아웃리치 팀장,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선교담당자, 선교유관기관 아웃리치 담당자, 국제부 아웃리치 팀장 및 담당자는 이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문의: 맹창수 간사(02-3215-3208)

차세대 신앙교육 성공사례

‘홈 시리즈’, 교회와 교사, 학부모의 소통 돕는다

도곡 차세대,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신앙교육 실시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된다. 고로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본질이다. 더 이상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업본부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도곡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 시리즈’다.

도곡교육관 차세대에서는 올해부터 세 가지 홈시리즈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홈페이지(Home-Page)’다. 홈페이지에는 매달 교회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양육 커리큘럼과 가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활동(말씀 암송)이 공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성인예배 주보에도 삽입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한다.

둘째, ‘홈페이지 카드(Home-Page Card)’다. 홈페이지 카드에는 매주 가정에서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 적혀있다. 차세대 영역별(예꿈, 꿈땅, 파워웨이브)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홈브릿지(Home-Bridge)’다. 홈브릿지는 학부모와 교사, 담임교역자가 만나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한 이야기와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이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위한 것이다.

홈브릿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실제 모임은 한 학기에 한 번 진행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꾸준히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다.

신앙교육 돕는 홈 시리즈가 무엇인가?

도곡교육관 차세대 예배에 출석하는 가정들은 ‘홈 시리즈’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한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차세대 교역자와 교사, 부모가 소통하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홈브릿지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초4, 초6, 고1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도재현 집사는 도곡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시리즈를 통해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 몰라 관리자처럼 체크만 하고 있었는데 홈브릿지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변화되었어요. 홈브릿지가 우리 가정에 정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춘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신앙을 전수하도록 돕는 홈브릿지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재현 집사 가정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홈브릿지에 적극 참여하면서 큐티하는 가정으로 바뀌었다. 도 집사 가정은 큐티하는 집으로 바뀐



1. 꿈땅 자녀들을 위한 큐티 훈련 키즈모닝
2. 홈브릿지
3. 도곡교육관 주보에 실리는 홈페이지

데에는 꿈땅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키즈모닝(꿈땅 자녀들을 위한 큐티 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

도곡교육관 차세대에서는 키즈모닝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도 집사도 자녀와 함께 참석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와 큐티 나눔, 적용 등이 부모에게도 도전이 됐다.

도 집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큐티 나눔모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키즈모닝에서 배운 것처럼 매주 토요일 큐티 본문을 나누고 찬양하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도 집사는 부모와 가정의 역할도 이렇게 설명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은 교회 책임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 교회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도곡교육관 초등부 교사이자 초4 중1 자녀의 엄마인 송현진 교사도 홈브릿지를 통해 신앙교육을 더

욱

철저히 하고 있다.

그녀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 교회와 교사,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진 교사는 차세대 교사로서 섬기며, 성인예배 드리라 바빴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삶과 신앙을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홈브릿지가 도입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부모와 교사를 잇는 SNS 단체방이 만들어지면서 교사인 그녀는 자신의 반 학생들의 공과공부와 숙제 등을 SNS로 공유했다. 그녀는 동시에 자

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도 손쉽게 알 수 있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른 부모들과 직접 만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문제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고민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 다 비슷해요. 엄마들의 고민 대부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끌어갈지 할지에 관한 것들인데 서로의 상황과 과정을 나누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송현진 교사도 홈브릿지에 참여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예수님이 좋아요>와 <생명의 삶> 큐티책을 자녀와 함께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노력한다.

“홈브릿지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큰 아이가 중학생이고 사춘기인데 함께 큐티를 시작한 이후 대화가 많이졌어요. 먼저 기도하겠다고도 하고요. 자녀와 함께 큐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가정과 교회가 손잡고, 삶으로 신앙실천 해야

초5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성희(가명) 성도는 도곡교육관 차세대가 실시하고 있는 홈시리즈 덕분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성희 성도 가정은 평소에도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큐티와 성경읽기를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왔다. 스마트폰과 매체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접하는 문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더 열을 올렸다. 그런 이성희에게 홈브릿지는 큰 도움이 됐다. 그녀는 홈브릿지를 통해 모인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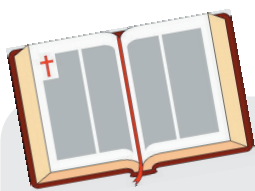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는 그루터기 같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신앙을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제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그녀는 도곡교육관 차세대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는 영적권위가 있어야 이들에게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오. 교회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도곡교육관 차세대(02-570-7553)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요 6:16~21

“예수님은 풍랑 만난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흥분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별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갑자기 불어 닥친 풍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으셨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가기 원하신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이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군중들을 설득시키거나 설명하기보다 피하셨습니다. 도망가듯이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셋째,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눅 14:27).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것은 거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가 아닌 것은 눈길도 주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 만난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18-19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세찬 바람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고, 계획된 풍랑이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

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저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막 6:48).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련함도 큰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나 경험, 지식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적절한 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급함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함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랑에서 건져 주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인내와 기다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께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풍랑이 곧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계속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손을 놓고 포기하고, 저주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손을 놓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예수 배 안으로 모였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20-21절).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시고,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하러 오십니다.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 14:18).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환난 가운데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과 환란을 그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셔서 배에 오르셨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배는 무사히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물 위에 있지 않으셨고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자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실 때도, 배에 계시실 때도, 땅에 계시실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풍랑과 고난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간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기적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삶에는 기적과 함께 일상이 필요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필요하고, 배 안이나 땅 위에 머무는 일상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기적이 필요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 기적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의 신앙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에는 십자가가 아닌 것은 피하셨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만난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가정의 달 기획

1. 효(孝) 2. 부부 3. 가정 4. 스승

참 스승이 한

학생과 인격적 만남 없고, 함께 보내는 시간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의 제자교육 방법과 원리 ... 함께, 이론과 실습, 경건 훈련

지난 4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2012년 11월에는 초등학생과 교사가 서로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사례가 2012년에는 7,971건으로 늘었다. 3년 새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금지시행 이후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초중고 교사 620명을 대상으로 교직스트레

스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교사 26%가 학생 생활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수업 스트레스는 10%에 불과했다. 물론 체벌이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방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생 간, 혹은 부모와 스승간의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도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회학교 수가 줄고, 교사와 학생이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어떻게 하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 실현 될 수 있는지를 참 스승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선생이 있었다. 널리 알려진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다. 그런 그녀 곁에서 48년 동안 눈과 귀가 되어 준 스승이 있다. 앤 설리번이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7세가 될 때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던 헬렌 켈러를 사랑과 인내로 보듬고 가르쳤다. 헬렌 켈러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모든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강의내용을 적어줬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스승인 설리번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스승이 있다.

지난해 4월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을 찔렀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 중에는 학생들을 구하다 참변을 당한 교사들도 있다. 전수영 교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25살이던 전 교사는 참사 당시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나오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살신성인(殺身成仁) 그 자제를 보여줬다.

2011년 방송된 tvN ‘코리아갯탈런트’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최성봉 씨가 주목받았다. 한국의 폴포츠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를 감동시킨 팝페라 가수로 우뚝 섰기 때문이다. 오늘의 최성봉이 있기까지 뒤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스승 박정소가 있다.

그는 껌팔이 소년이었던 최성봉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가르쳤다. 최성봉이 껌팔이에서 한국의 폴포츠로 거듭나도록 도와줬다. 최성봉은 3살 때 누군가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졌다. 고아원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다 5살에 도망쳐 거리로 나왔다. 그때부터 껌을 팔고,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업소에서 껌을 팔다 성악가가 부르는 성악에 매료된 최성봉은 성악을 배우고 싶어 무작정 박정소를 찾아갔다. 당시 박정소도 레슨으로 근근이 먹고 사는 가난한 음악대학 청년이었다. 그런데도 박정소는 아무 대가 없이 최성봉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돕기도 했다. 음악을 넘어 우정과 사랑으로 최성봉을 키웠다. 박정소는 최성봉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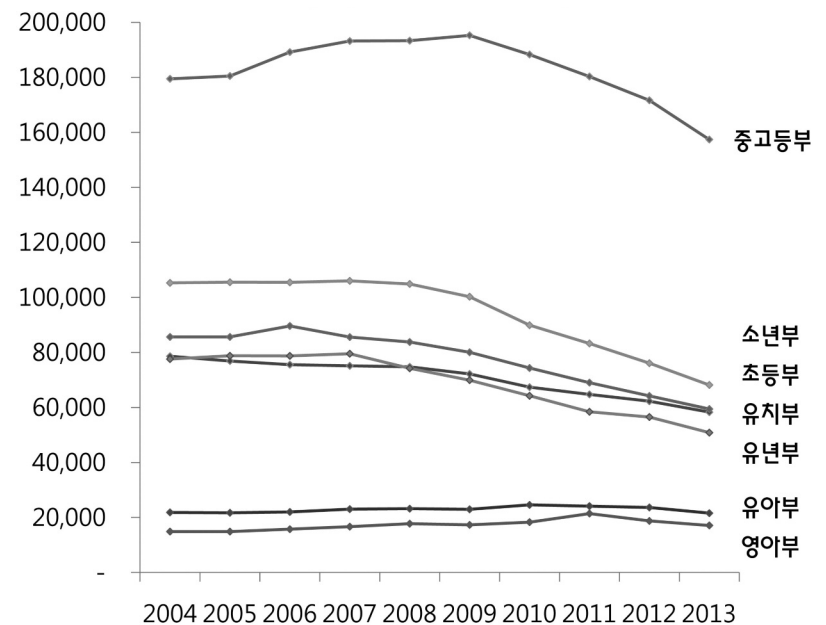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성봉이에게 음악을 가르치셨고, 성봉이를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일은 성봉이가 좋은 음악인이 되도록 지켜봐주고 충고해주는 일이었어요.”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공교육 교사의 위기는 교회학교 교사의 위기이기도 하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다. 2014년 예정통합교단 총회에서 보고된 교세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그래프 참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교회학교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그 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부는 2011년 기점으로, 유아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유치부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년부와 초등부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고등부는 2009년부터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적 위기뿐만 아니라 질적 위기도 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기독교교육학)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질적 위기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교회교육 위기요인 1위는 학생들과 교사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2위는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3위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4위는 교육 부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꼽았다. 교회학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가 핵심이다. 교사가 학생과 어

2004~2013년 예정통합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



떤 관계를 맺느냐가 교회교육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도, 과정도, 시설도 아니다. 바로 교사다.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교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물도, 교과서도, 커리큘럼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학생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공교육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 교회학교 교사의 인격적 태도와 가치는 그 어떤 지식보다 학생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준다.

요즘 같이 관계 단절, 소외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지지해주는 교

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과 돌봄, 사려 깊음과 친절은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격과 영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학생의 인생을 바꾼다.

예수님은 참 스승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면 ‘가르침’(teaching)과 ‘복음 전파’(preaching), ‘병 고침’(healing)이었다고 할 수 있다(마 4:23, 9:35). 예수님의 사역은 3년으로 끝났지만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제자들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기에 가능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3.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심 ; 경건훈련

가르치셨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으셨다. “강의시간이니 지금부터 교육을 실시하겠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진리를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자연스레 대답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이 교육시간이었고, 모든 환경이 교육환경이었다. 강의실 교육이라는 제한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방위 교육을 실행하신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교육과 동시에 삶 속으로 지도하는 교육방식이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교육을 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2. 보내사 전도하게 하심

가르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전도하도록 하셨다.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습이 뒤따랐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받았다(눅 9:10, 10:17).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책망하거나 권면하셨다(눅 10:18~20). 예수님의 실습 교육은 단순히 연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을 상대로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다. 제자들은 실습을 통해 예수님 말씀의 진실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깊이 체험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의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 초대 교회에서 귀중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12제자를 따로 불러 교육하셨다(마 4:18~22, 10:1~4, 막 1:16~20, 3:13~19, 눅 6:12~16, 요 1:35~51). 특히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눅 6:12).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시사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교육 원리나 방법을 알면 오늘날 직면한 교권추락, 교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막 3:14-15).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교육 원리다.

1.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전도하는 능력을 얻었다. 귀신 쫓는 능력도 받았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교실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다.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다. 무리들에게 설교나 강론하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셨고, 식사할 때도 가르치셨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교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랐다(마 7:29). 말만 있는 교육이 아니었다. 율법을 해석하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으며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신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들로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일정한 권세를 부여하셨다(눅 9:1~2).

이 권세는 제자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였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교육에 있어서 경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고전 4:20).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막 1:35), 제자들에게 기도 부족을 책망하셨으며(막 9:29),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6:41). 이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고(행 1:12~14),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도 규칙적으로(행 3:1, 10:9) 혹은 특별한 때(행 4:23~31)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제자교육은 오늘날의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세상 교육과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삶을 나누는 교육을 하셨다. 시간이나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 교육이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재가 함께 있는 산 교육이었다. 말 뿐만 아니라 지식교육이 아니라 전파되

는 복음에 자신의 권세를 주시는 능력교육이었다. 무엇보다 제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해 힘쓰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셨다. 모든 교육의 바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교육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엡 4:22~24).

참 교육의 밑바탕 ‘인격적 관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불쌍히 여기사’에 쓰인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다. 이는 창자가 찢어지는, 뒤틀리는 것 같은 슬픔을 말한다. 예수님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시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번 선생이나, 꺾팔이 소년 최성봉을 가르친 박정소 선생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림하지 않았다. 지식만 전수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슴 뭉클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릭 워렌 목사는 “고기 잡는 베드로를 섬김으로 이끈 예수는 2천년 후에도 21억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참된 스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교사의 사명감 부족이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문결과를 이 세상 모든 교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부천 여성들은 한 주가 즐겁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건강도 챙기는 프로그램 풍성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은 한 주가 즐겁다. 무릎선교기도학교모임부터 좋은 어머니스쿨과 바른자세운동까지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예배와 프로그램이 매주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사역의 꽃 중보기도도 쉼 없이 하고 있다. 지난 20일 생활 속 행복을 찾는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현장을 다녀왔다.

/ 김미림 기자



강화도 선상세례 배 위에서 무릎선교기도학교 팀의 모습.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의 대표주자는 수요일 여성예배다. 여성들의 회복과 치유가 주를 이루는 예배다. 부천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는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드린다. 5월은 말씀의 능력, 6월은 기도의 능력, 7월은 복음에 빛진 자가 주제다.

지난 20일 수요일여성예배에서는 안광복 목사(서초B공동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며’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날 설교에서 안 목사는 “여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강조하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진 여성의 믿음이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의 믿음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수요일여성예배 팀장 조경은 권사는 “부천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가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예배라고 확신한다”면서 “부천 여성들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성사역의 꽃 ‘무릎선교기도학교’

무릎선교기도학교는 여성사역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보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층 드림홀에서 기도하고 있다. 매주 선교사의 강의와 열방을 위한 소그룹별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122년의 선교 역사를 간직한 강화도 교산교회로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이날 초에는 액세서리, 영양제, 신발 등을 모아 선교지로 보냈다. 무릎선교팀에서 보낸 물품을 받은 한 선교사는 “비타민이 필요했는데 정말 비타민이 왔다”면서 무릎선교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의: 함명희 팀장 (010-2360-5173)

좋은 어머니 되는 법 배우는 ‘좋은어머니스쿨’

좋은어머니스쿨은 가정, 회복, 세계관, 관계, 치유 등을 주제로 이어지는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다. 말 그대로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스쿨이다. 좋은어머니스쿨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사역이다.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좋은어머니스쿨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사전등록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문의: 이정옥 팀장 (010-5040-3368)

일석이조 ‘바른자세운동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꿈아이홀에서는 바른자세운동(SNPE, Self Nature Posture Exercise)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4인 1조로 매트를 깔고 누워 스트레칭하면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새가죽들의 정적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오십견, 암, 디스크 증상을 가진 성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바른자세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박명숙 성도는 “신체운동을 통해 근육을 다지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16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바른자세운동은 7월까지 진행된다.



목회칼럼 권오향 목사(부천 여성사역)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셨다.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다. ‘상대를 마주보며 돕는 자’라는 뜻이다. 누군가 곤궁에 처해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낙심과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자 부르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삶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하나님은 여성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각자에게 주신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성들을 부르고 계신다.

부천 여성사역은 지역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수요일여성예배는 “나는 내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다. 예배를 통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앞매인 아픔과 상처도 회복시킨다. 부정적 자아상을 심어준 거짓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생명의 빛 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설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수요일여성예배에 나오던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죽고 싶었던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부터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여성들은

그만남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는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섬기는 것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모인 성경일독학교, 큐티나눔방, 좋은어머니스쿨, 무릎선교기도학교, 좋은 이웃모빌리티 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한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거부하던 자들에게 담대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요 4:14).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기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여성들이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체육대회로 연합한 두 공동체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일산, 고양은평공동체 연합 체육대회

주 안에서 연합한 축제한마당

지난 5월 25일(월) 일산공동체(담당 노치형 목사)와 고양은평공동체(담당 여성민 목사)가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고양시 하나은행 원당축구장에서 개최된 체육대회에는 46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소망팀(고양은평)과 희망팀(일산)이 연합예배를 드리고, 보물찾기, 구기종목,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공동체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두원 장로(일산공동체)는 “고양은평공동체와 일산공동체는 한 공동체였다.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두 공동체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옥 장로(고양은평공동체)는 이날 체육대회를 “온누리교회 30년을 준비하는 북서쪽에 위치한 공동체로 연합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두 공동체 지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용출 집사(고양은평공동체)는 “오랜만에 두 공동체가 모여 단합하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다”고 했고, 이혜진 성도(일산공동체)는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승부를 떠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하가훈 106기 종강 ... 39가정 수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06기가 종강했다. 하가훈 106기에는 온누리교회 일산공동체, 오병이어교회, 내수동교회, 동수원장로교회 성도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가했다. 하가훈 역사상 처음으로 모집인원 40가정이 마감기한 한 달 전에 등록을 마쳤고, 40가정 중 39가정이 수료했다. 지인의 소개로 하가훈에 참가한 신진철, 송은영 부부(일산공동체 누가2순)는 “가정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

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시간이 인상 깊었다”면서 “앞으로 삶을 더 소중하고,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 하가훈 105기와 106기를 합치면 일산공동체에서 하가훈을 수료한 가정은 모두 20가정이다. 노치형 목사(일산공동체)는 “하가훈의 열매가 일산공동체 가정 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수료 간증



가정은 선교지, 남편은 제사장, 나는 돕는 배필

/ 윤유조, 김채원 가정(일산공동체 누가4순)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힘든 시기에 남편을 만났다. 내가 바랐던 이상형이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 빨리 결혼한 만큼 아기도 빨리 갖게 되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여자만 참으면 되는 줄 알고 참았더니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점점 나의 존재감을 잃어갔다. 둘째가 태어난 이후,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2의 피해자가 된다는 생각에 하가훈에 참가 신청을 했다. 간절한 마음이었다. 하가훈에

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남편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다. 항상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지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가훈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 사랑 표현방법,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 가정을 선교지라 생각하고 남편을 제사장으로 받들 것이다. 나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아이들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양육할 것이다.

분당B, 한터공동체 연합 야유회



지난 25일 열린 분당B공동체와 한터공동체의 연합 야유회 모습.

■ 야유회를 마치고

그들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 이태희 순장(분당B 갈렙3순)

분당B공동체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황새울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날 야유회는 매우 뜻 깊었다. 한터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무려 2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뛰놀고, 교제를 나눴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락방 대항 친선축구 시합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어린이 성경구절암송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척 설렘했다. 나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터공동체와의 만남이 더 설렘보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친선 축구시합을 하면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골을 넣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처음 가졌던 어색함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면서는 서로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점심 시간에 손수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인상 깊었다. 그렇게 함께 뛰고, 함께 놀고, 함께 먹었더니 분당B공동체와 한터공동체가 한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당B공동체와 한터공동체가 함께 한 시간은 불과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까워만 친해지고, 서로를 깊이 알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뜻 깊고 소중한 시간임이 틀림없다. 그들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땀 흘리고, 교제한 풍성한 나눔의 場

지난 25일 분당B공동체와 한터공동체가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다. 분당B공동체 192명(자녀 포함), 한터공동체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야유회는 분당B공동체가 탈북청소년을 초대해 위로하고, 공동체 간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야유회 장소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황새울공원이었다. 운동장과 축구장이

있어 단체운동이 가능한데다 신록이 우거져 있어 더위와 햇빛도 피할 수 있었다. 야유회 장소로 최적의 장소였다.

야유회는 친선축구경기, 레크리에이션, 점심식사, 어린이 성구 암송대회, 야외예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두 공동체는 함께 땀 흘리고, 교제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분당B공동체는 이번 야유회를 위해

각별한 준비를 했다. 공동체 리더십들은 야유회 준비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했다. 또 각 순별로 점심식사를 손수 준비했다. 예산을 절약해 그만큼 한터공동체에 후원하기 위해서였다. 의미는 물론 성도 간 교제가 풍성한 야유회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군선교팀, 진중세례식

하나님 나라 군사들로 거듭나다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 2,600명 세례 받아

지난 23일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진중세례식에서 훈련병 2,60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날 진중세례식을 위해 온누리교회 목회자 40명, 장로 80명(장로합창단 포함), 권사와 집사 81명, 군선교팀 27명 등 총 228명이 헌신했다. 복음의 황금어장 진중세례식 현장에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여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교회 앞에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사람들이 서둘러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에 봉사하러 가는 성도들이다. 버스가 교회를 출발해 논산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황금연휴 첫 날이라 고속도로 정체가 심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느라 통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군선교팀 김준용 팀장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봉사자들이 점심도 못 먹고 바로 연무대군인교회로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팀장은 봉사자들에게 연신 사과를 했다. 봉사자들은 괜찮다며 오히려 김 팀장을 위로했다. 오전 11시 반에 논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1시 반이 다 돼서야 연무대군인교회에 도착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둘러 선교교육관으로 이동했다.

연무대군인교회 선교교육관은 온누리교회와 인연이 깊다. 2005년 당시 연무대군인교회 이정우 군목이 하용조 목사를 찾아왔다. 장병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거나 교육장소가 부족하다면서 선교교육관 건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006년 1월 온누리교회는 신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연무대교회 선교교육관을 설립해줬다. 그렇게 세워진 선교교육관에 모인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은 가장 먼저 진중세례식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했다. 강의선 장로와 손신국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오늘 세례받는 훈련병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봉사자들이 세례를 마치고 나오는 훈련병들을 축복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선교교육관에서 본당으로 이동했다. 진중세례식이 거행되는 본당에는 2600명의 훈련병들로 가득했다.

드디어 진중세례식이 시작됐다. 강의선 장로가 대표기도로 포문을 열었다.

“오늘 청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훈련병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해주소서.”

이어 손신국 목사(군선교팀)가 강단에 올라 말씀을 봉독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장로합창단과 김수정 성가사의 특송도 이어졌다. 훈련병들을 위해 준비해간 선물을 소개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포켓성경, 십자가 펜던트, 폼클렌징, 삼푸, 초코바, 과자, 음료수를 한데 묶어 장병들에게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훈련병들이 아이처럼 좋아했다.

설교는 박종길 목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했다. 박 목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세례자 서약이 이어졌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서약이 끝나자 박종길 목사를 비롯한 40명의 목회자들이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줬다. 장로들

은 세례기를 들고 옆에 서서 방석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훈련병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다. 장로들은 훈련병들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줬고, 권사들은 수건으로 훈련병들의 머리를 정성껏 닦아줬다. 그 따뜻한 섬김에 훈련병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날 세례를 받은 박지환 훈련병은 “난생처음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극진히 대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자로 참석한 조선녀 집사는 “훈련병들이 아들 같아서 마음껏 안아주고, 축복해줬다”면서 “오늘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 연무대군인교회에서만 6만 7천여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선 장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세례 간증

믿는 길을 발견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군 생활에도 기쁨이 생겼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준다기에 교회에 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믿음으로 교회에 간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이 사랑으로 보살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동기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 군대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그 반감이 커질수록 힘들고 아픈 일도 많았다. 그런데 군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사라졌다. 아마 군대에 오기 전에 겪었던 힘들고 아픈 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 같다.

/ 노은철 훈련병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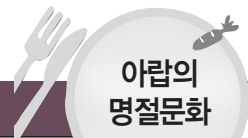
나의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실 때마다 단칼에 거절했다. 종교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대 오기 전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었다. 1년 동안 채플과 기독교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 와서 교회에 발을 들일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간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

회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교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교회에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아서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 박중운 훈련병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노규석 목사



라마단 (Ramadan)의 저녁식사 ‘이프타르’

이슬람 세계의 최대 행사는 한 달간 모든 무슬림들이 참여하는 ‘라마단’ 금식일 것이다.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이슬람력 9번째 달에 한 달간 진행되는 라마단 금식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진행되는 금식행사다.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한 인사도 나온다. ‘라마단 카림(Ramadan Kareem, 관대한 라마단)’이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인사를 나눈다. 이 기간에는 거리 곳곳이 형형색색의 네온으로 장식된다. 성탄절 분위기와 흡사하다.

아랍 국가들에서 라마단 기간에 쇼핑물이나 모스크를 방문하면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저녁 해 질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다린다. 다들 시계를 쳐다보며 신호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라마단 금식이 끝나는 아잔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식사를 시작한다. 마치 군대에서 일제히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루 종일 금식했으니 그 저녁 식사가 꿀맛일 것이다.

이 라마단 저녁식사를 ‘이프타르(Iftar, 금식을 깬다는 의미)’라고 부른다. 라마단 기간의 이프타르 저녁식사는 그야말로 동네잔치다. 모든 모스크와 부자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텐트를 쳐놓고 동네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상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라마단 한 달 동안은 어느 마을이나 모스크에 가도 공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은 가난한 이

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나그네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다. 7시를 전후로 진행되는 이프타르 저녁을 먹고 밤이 늦도록 친척과 이웃을 방문하며 자정이 넘도록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한 번 더 식사를 한다. 하루 종일 금식해야 하니 새벽에 잘 먹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을 한다. 밤에 세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평소보다 음식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하고 병원마다 과식으로 인한 환자들이 넘쳐난다. 낮에는 금식을 통해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에 이렇듯 축제를 벌이다보니 관광사와 회사마다 근무시간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아랍 국가들의 생산성이 급감하게 된다.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권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낮 시간에 무슬림들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안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벌칙금을 물거나 심할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랍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커튼으로 가린 호텔 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동차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간이다. 하루 종일 금식한 무슬림 운전자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 곳곳에서 교통사고를 보게 된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한 달간 참여하는 금식일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필요한 업무는 오전 중에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낮잠 자면서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는 거리에 나가 라마단 축제인 이프타르 식사를 즐기며 무슬림 친구들을 방문한다. 오후 시간에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던 무슬림 친구들도 이프타르 식사 시간에는 모두 친구가 된다. 길거리를 가면 서로 와서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대한다.

라마단 기간 낮 시간에 모든 무슬림이 함께 금식하며 함께 고통을 경험한다면, 밤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잔칫상을 차려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축제를 경험한다. 이러한 라마단을 통해 무슬

림들은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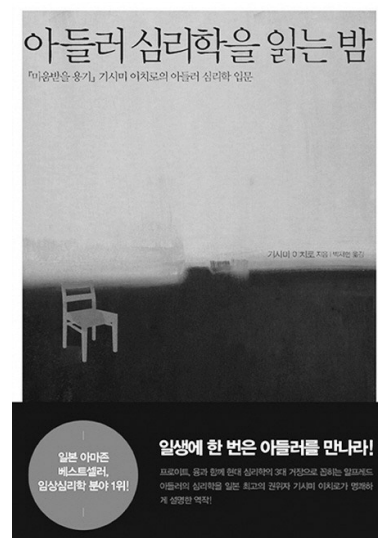
금년 라마단 기간은 6월 18일~7월 17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이슬람권 국가로 아웃리치를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낮 시간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대신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라마단 이프타르 저녁식사를 적극 활용하여 식사비도 아끼고, 이슬람 문화도 체험하며 무슬림 친구들을 사귀는 1석 3조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칼럼 서재범 목사(신용산, S브릿지공동체)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을 읽고



“할머니집에 가면 아무리 잘해주셔도 등에 진 배낭을 못 벗고 있는 것 같아.”

재수생(再修生) 아들이 자신에게 잘 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평일 내내 지나다가

주말이면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다.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나는 이 말을 금방 이해했다. 나도 내 집이 제일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들은 집에서 자기가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자낸다. 아내는 언제나 유행이 한참 지나 버린 딸의 바지를 입고 있다. 고등학교 딸이 걸치고 있는 옷은 목이 다 늘어진 오빠 티셔츠이다. 아들은 더 가관이다. 날이 더우면 옷통을 벗고 있고, 언제나 내 파자마 반바지를 자기 옷으로 삼는다.

왜 내가 우리 가족의 이러한 ‘치부’를 장황하게 설명할까? ‘사람은 내 집에서 스스로가 된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깝지만 알아도, 우스꽝스러워도 그 모습이 가장 편안하고 사랑스럽다. 내 집에 있는 옷은 나의 분신과 같은 것이다. 최근에 읽은 일본작가 가시미 이치로가 쓴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은 나의 본 모습을 생각하게 해준 책이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추하든 아릅답든 시기를 받든 질투하든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있기

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비열하다고 느끼고, 그걸 고상하게 바꾸기만 하면 멋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어찌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런 면에서 내 본래의 모습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처럼 느껴진다. 사실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때때로 내 마음을 정직히 표현하는 것 또한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용기 낼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왕기상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든 모습을 남김없이 토로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

을 가져가 주십시오. (중략)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중략)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말속에는 원망과 암살이 있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정말 ‘죽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7천명의 남은 자들처럼 모든 예언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솔직한 표현을 통해 드릴 수 있는 최고로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아들러는 남에게 잘 보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편안해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목사인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설교를 잘 하려고 긴장할 때 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나는 험령험령하고 낡은 내 집 옷이 좋다.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한 휴일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좋다. 이상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이 좋다. 외출할 때 예쁜 모습도 좋지만 때때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 민낯의 모습이 정이 간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건할 때의 내 모습도 좋아하시고, 낙심하여 약해져 있거나 화내는 못난 내 모습도 역시 좋아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내 배낭의 짐을 풀고 집처럼 될 수 있는 지 모른다.

북한선교학교 12기 종강

44명 수료, 복음통일 준비하는 기도자로 거듭나



북한선교학교 12기 수료식에서.

북한선교학교 12기가 7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28일 종강했다. 총 44명이 수료했다. 서빙고 비전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북한선교학교 수료생 44명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복음통일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했다.

이날 수료식은 온누리교회 북한지역 소개, 탈북민 간증, 수료식 및 수료자 간증 중보기도순으로 진행됐다.

분당갈보리교회 김영일 형제는 “북한선교학교에 오기 전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 등에서 우월하다는 근

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북한선교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오해, 통일의 의미 등을 배우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덧붙여 “통일이 단순히 영토 확대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알게 돼 유익했다”고 했다. 이태호 성도(강동 프라미스)는 “북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북한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선교학교는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복음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천선교

본부가 주관하고 있다. 북한선교학교에서는 북한선교 역사, 북한 체제의 전망, 북한경제와 통일경제, 북한 인권과 크리스천의 사명, 북한사회 변화 등을 배우고 토의한다. 연 2회,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번갈아가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회를 넘어 정부부처로까지 그 지경을 넓혔다. 지난 14일부터 5주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문의: 이창은 총무 010-2335-606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MN,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개최

6월 20일 오후 5시 양재 기쁨홀

오는 6월 2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의료선교팀 CMN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흠어져 있는 온누리교회 의사들을 초청해 교제하고, 축복하는 장(場)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온누리교회 의사의 밤 행사에는 6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사교제, 특순, 이성미 토크 콘서트 ‘기독교 의료인’,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선교팀 CMN측은 “의사들이 화합하고,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의: 02-3215-378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의료진 초청 연수 실시

NGO 더멋진세상과 아산병원이 함께 추진한 르완다 의료진 연수가 끝났다.

르완다 의료진 초청 연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아산병원에서 진행됐다. 초청 연수를 받은 르완다 의료진들은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가 있는 르와마가나시의 시립병원장 John Baptist, 응호망과 마을 루룬다 보건소소장 Gerard, 르와마가나 시립병원 간호파트장 Kiiza였다. 이들은 소

아과 병동에서 견습생으로 3주 동안 생활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해외 의료진 초청 연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르완다, 세네갈, 이집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나라별로의 사와 간호사 5-6명을 초청해 아산병원, 연세병원, 예수병원, 온누리교회 협력병원 등에서 1~3개월간 연수를 받게 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러빙유 청년벤처대회 참가자 모집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참가 신청

창지적 사명으로 건강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러빙유 청년벤처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5일(금)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나 예비창업가, 창업 3년 미만인 사람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성경적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야라면 게임, 음악, 문화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사회선교부 홈페이지(jimonnuri.org)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이메일(jimonnuri@gmail.com)로 보내면 된다. 6월 10일(수) 서류 심사를 하고 20개 팀을 1차로 선발한다. 합격자는 개별 공지된다.

문의: 02-570-7094

축하합니다

5월 세례자

■서빙고

김양원 김한정
박진호 730206 김윤아 131104
권보영 730528 김동영 민소연
박애리 721129 김주영 131001
송병직 740921 김범수 이현우
이경희 620520 김하은 140719
이주영 770218 김종훈 권나원
최성혁 781214 김하준 140404
조정민 741218 김성훈 해민영
김동욱 770725 라 엘 140523
문경애 600310 라용태 전인순
이영숙 561129 양은지 130820
정 윤 790222 양승대 김지혜
하성호 740902 여 준 140423
▷ 유아 여중현 김현영
김진서 140208 조소빈 130709
김도한 전정희 조한무 정유진
김나엘 130628 한승희 140410
김형호 유경하 한정훈 백지혜
김도현 130523

■양재

김세인 150214 김관형 박미영
김관형 731225 김종원 130919
김유미 850725 김형석 김민재
김일부 421105 김종현 130919
김재순 451226 김형석 김민재
박선주 740531 김주안 141104
박재우 560828 김용주 한지유
서지은 870911 노하윤 130924
손해근 541118 노형민 최은미
양승원 870528 박라희 140527
원종실 750713 박정은 이종은
임도원 790922 송가을 130822
임원혁 660115 송가백 이보영
▷ 입교 김윤희 910329 송윤서 140320
김윤희 910329 송영우 조윤희
▷ 유아 심소울 130701
강규리 140709 심성보 이윤애
강현식 이미현 이하랑 131211
김라임 140421 이왕섭 이나영
김희철 김여진

임동유 140624

임도원 신은주
전은설 140828
전민혁 김지영
정예하 140321
정재륜 손 숙

〈대청〉

■하늘
▷ 입교 천국현 960512
최하나 95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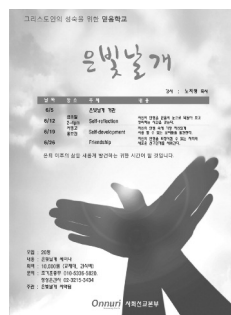
■허브
이혜인 930221

■SNS

김은지 880215
이근성 880213

은빛날개 세미나 열린다

6월 5~26일 오후 2시
서빙고 홍보관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은빛날개 세미나’가 6월 5일(금) 오후 2시 서빙고 홍보관에서 개강한다. 6월 26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은빛날개 세미나에는 30대 이상 성도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회비는 1만 원(교재, 간식비 포함). 은빛날개 세미나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인생 후반기 사역하는 시기’로 보고 은퇴했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돕고 있다. 사회봉사나 사회선교 현장에 연결해 자원봉사자나 유급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있다.

문의: 02-3215-3434



남양주 온누리교회 야외예배

지난 24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미사리 조정경기장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올해로 네 번째 드린 야외예배에는 차세대부터 성인까지 566명의 성도들이 참가했다. 세대별 대표자 기도와 교역자들의 코믹한 댄스 공연 등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모두 하나 된 자리였다.

에zell선교회 창립 20주년

에zell선교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8일 에zell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날 감사예배에서는 에zell선교회를 위해 헌신한 37명의 에zell인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선교사와 교회, 선교사 자녀와 에zell선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자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

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도 전달했다.

에zell선교회는 선교사들을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지로 찾아가 섬기는 단체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 33개국을 찾아가 섬겼다. 국내 25개, 해외 12개 기도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김미림 기자

제1051호 | 2015년 5월 31일(주일)

■ 유아세계 간증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 아이: 김진서, 부: 김도한 모: 전정희

누나가 어린 시절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이모로부터 한 권의 성경책을 선물 받았다. 그 일이 우리 가족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네, 나중에 요 아이들부터 보낼게요”라고 답하셨다. 거절을 못하셨던 어머니의 성품으로 우리 남매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끔 교회에 나갔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면서 발길이 끊겼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보다 두 살 많던 누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다. 보통 사람들이 한두 번 겪을만한 일들이 2년 동안 우리 가정에 닥쳤다. 부모님은 당시 영적으로 무지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어느 날 “우리도 교회라는 곳을 한 번 가봐야 겠다”며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기를 자청하셨다. 교회에 처음 등록한 날 목사님을 부여잡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부터 우리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부모님의 변화는 우리집을 넘어 친척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새벽기도,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도 모자라 가족예배까지 드렸다. 예배에 꼭달라 하시던 부모님의 믿음이 점점 뜨거워졌다.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결론이 있다고 믿어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천으로 지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진서로부터다. 전에는 결혼을 하면 아기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흘러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2012년 어느 봄 날, 리브가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시험관 수술을 하고 온 당일 저녁 큐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단겠느냐 하시니라”(사 66:9)는 말씀을 주셨다. 의학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가라는 것을 알려 주셨다. 아직도 새벽예배를 다녀오셔서 잠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속삭이는 기도소리가 생각난다. 그 기도가 쌓였기에 수많은 영적방황 속에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았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선행한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길에 바로 설 때까지 아이를 위해 기도하려 한다.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간증



“이제 나는 일대일 양육자”

/ 방수미 성도

나는 모태신앙이다. 온누리교회에 온지도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제자 양육은 생소했다. 내가 몸담고 있었던 청년공동체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교회에 발 들여 놓기 어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양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이수한지 10여년이 흐른 뒤 양육자반을 신청했다.

마음은 거창했지만 일대일 양육자반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에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육자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에 성령님께 의지하며 노력했다. 교재의 각 단원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큐티’를 배우면서 분주함을 핑계로 말씀을 듣지 못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큐티노트를 기록하는 습관을 새로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탕자의 비유가 마음에 다가왔다. 나 자신이 오래된 신자이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 ‘기도’를 배우면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임과 동시에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탕지처럼 빈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배우면서 시험은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게으름을 용납하지 말고,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사역’을 배우면서는 사역은 일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직분에 따라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삶을 통해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내가 다른 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성장이 왜곡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렇기에 더욱 주님께 성령충만을 구하며 때를 기다리고 싶다. 내가 양육자반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직장 후배가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교회 안에서 먼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후배와 함께하며 양육자로 서고 싶다. 양육자반을 최선을 다해 이끌면서 평신도로서의 모범을 보이신 최상근 장로님과 섬겨주신 스테프들, 함께한 조원들, 기도로 도와준 순원들, 남편과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북한선교학교 12기 수료 간증



/ 임형민 성도

기도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

20대 초반에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뛰놀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다른 곳이 아닌 북한에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기도했다. 그날 이후 10년이 훌쩍 지나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북한은 정치면의 가시거리로 인식되었다. 북한에 대한 정보들은 스포츠나 연예계 기사보다 관심 없는 내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북한 선교학교 포스터를 보았다.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옛 사진 한 장이 반가운 것처럼 북한선교학교에 참가신청을 했다.

그렇게 시작한 북한선교학교는 다양한 강의와 토론들을 통해 북한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과제로 읽은 오대원 목사님의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은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

나는 7년 동안 육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소대장, 중대장, 참모 등 각종 보직을 거치면서 무엇보다 군에서 말하는 안보관과 대적관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에게 확고한 사상을 심어주는 자리에 있었으니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북한군과 당, 정권에 대한 관점과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연히 달랐다. 그런 내게 “정복자가 아닌 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령님의 메시지 같았다. 훗날 북한이 열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도 종의 마음으로 그곳 사람들 모두를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에 들어가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다. 주님의 영은 지혜와 이해, 조연과 지식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자들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역은 이러한 종들의 정신을 통해 가능해진다.”

몇 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하나님께서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지혜와 지식의 영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북한선교학교를 통해 주님은 내가 북한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지를 알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으로 기도한다. 북한에도 복음이 주는 기쁨이 전해지기를.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강우구 성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서울로 이사 오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았다. 자녀들이 먼저 온누리교회에 등록했고, 아내와 난 작년 8월에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었다.

신앙생활을 한지도 오래고,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사역도 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새신자 과정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새신자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기도 했다. 일대일 동반자과정과 양육자과정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들을 다시금 공부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온누리교회의 사역 방향 등을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교회에 빨리 적응해 나가는 계기도 되었다.

전도학교도 수강하게 되었다. ‘온누리 전도학교 5분 전도’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런지 대상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전도 방법이었다. 접착점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대상자가 결신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었다. 전문을 외우느라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조장님과 사역자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해낼 수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장경문 장로님을 비롯한 강사들의 전도의 필요성과 전도방법 강

의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전문기적인 견해와 전도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는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게으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 전도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안산M센터에서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현황을 듣고, 그들을 직접 만난 전도현장은 해외선교지 같았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깨닫고 감사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전도학교를 마치며 전도에 대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하다. 전에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고, 전도가 쉽지가 않다고 열매가 없다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하영철 장로

교회(敎會)가 교회(交會)되기

“교회(敎會)는 교회(交會)가 되어야 한다.”
예수원 설립자인 대전덕 신부가 쓴 글의 일부다. 나는 옛날에 이 글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다. 교회는 참으로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交會)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번역할 때 ‘가르침의 교(敎)’ 대신 ‘사귄 교(交)’를 써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가르침의 모임(敎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큰 뜻이 있다(마 28:19-20).

성경에 Koinonia(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다. ‘교제, 사귄, 공유, 남과 함께 나눔, 공통(共通), 다 같이’(요 4:9, 행 10:28)라는 뜻을 가진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교제는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수직적 교제)와 아래로는 인간 서로간의 친교(수평적 교제)가 연결되고 결합하여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한다. 이를 먼저 몸소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 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와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교제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

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4-46).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서로를 돌보는 성령공동체의 모형이었다. 그러면 현실의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다. 세계에서 교회 숫자가, 신학교와 신학생의 수가, 목회자 숫자가, 성도가 가장 많다. 또한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통성기도에 열정적이다. 헌금과 헌신에서도 세계 제일이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인가. 이 모두가 우리의 덕목이요, 큰 자산이다. 하지만 성도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소임을 잘 하지 못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지도력을 잃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온누리교회가 올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Go Lower)’ 표어를 제시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자세로 더 어려운 곳, 더 어두운 곳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사회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야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온 성도가 교회(敎會)에서 가르침과 배움으로 무장된 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친교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회(交會)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데 공간을 많이 사용하느라, 친교의 공간이 적어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순에서, 다락방에서 또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권사칼럼 서승욱 권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일대일사역팀에서는 주일 아침마다 기도모임을 시작할 때 “일대일을 하면 행복합니다”를 외친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아주 좋아한다. 그동안 양육자로써 일대일 양육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대일사역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축구를 곧두세우고 있다. 성도들을 만나면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했는지를 물어보기도 한다. 동반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간증문은 잘 쓰고 있는지, 사역팀원들이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물론 아무도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같고, 일대일 제자양육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요 10:3).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이 ‘하나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성도 전부를 뚝뚝 그려 ‘주의 자녀들’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한명한명을 알고 계신다. 나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1994년 5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때부터 내 이름의 의미와 이메일 ID가 바뀌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용하던 내 ID는 ksmi(일 본어로 안개꽃이라는 뜻)였는데 그 날 이후 발음이 비슷한 카즈미(이기는 열매)로 바꿨다. 내가의 의미를 바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대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만나주신다.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만나는 양육자나 동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동반자와 만날 때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에 놀라곤 한다. 나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당황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휴대폰 단체채팅방에 일대일사역자 모임방이 있다. 나는 그 공간에서 즐겁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년 부터 그림 큐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 또한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무척 기뻐다. 큐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찡찡 들어온다. 이것 또한 나의 능력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림 잔광지도 아닌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대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린다.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신 주님. 당신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사람,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에세이 최성석 목사(이수공동체)

잃어버린 열정 찾기

하나님께 부름 받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 대학청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신학대학원만 들어가면 뭔가 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폭포수처럼 은혜가 쏟아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화개하고, 성도의 행진을 견게 될 것만 같았다. 내 안에 그런 열정이 가득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 열정이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지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저만치 멀어져가고 있었다. 5월 한 달 동안 온누리신문에 ‘신앙에세이’를 연재하면서 더더욱 그러했다.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가식적이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학대학원에서의 그 열정과 부르짖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물론 지금도 내 안에 열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기에 젊은 시절은 그 때의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과 열정이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열정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주신 비전이다.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희미해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잊지 않고 계시다.

지난 3월이었다. 나에게서는 목회 4인방(하용조 목사, 육한흠 목사,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과 같은 동기가 있다. 그 중 한 동기에게서 늦은 밤에 전화가 왔다. 그날따라 나는 너무 많이 지쳐있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대한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다.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다.

“형 생각이 많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통화하는 전하기 너무도 “주여! 주여! 주여!”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동기에게 “오늘도 산기도 간 거야? 내가 참 많이 부끄럽다. 너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갈급해하고 찾고 있는데, 나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만 부리고 있으니, 네가 참 귀하고 귀하다. 고마워. 내가 잊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서. 힘들다고 투정부리는 나보다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야. 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하는 것이고, 나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겨우 하고 있어. 하나님은 형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많은 것을 맡기신 거야.”

“나는 그 99가지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더 귀해 보여.”
“형, 힘내. 여기서 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동기를 통해 위로 해주셨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열정이 식으면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낙담하고 절망에 휩싸여 신음하며 쓰러지면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밖에 없다.

영적인 공급처가 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두란노 신간

기도를 배우고, 느끼고, 삶에 적용하라!

〈팀 켈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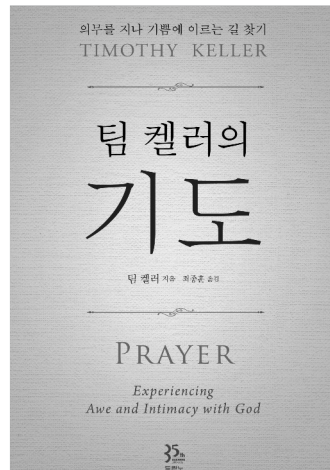
팀 켈러 저, 최충훈 옮김 | 두란노 | 16,000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출퇴근, 업무, 육아, 모임, 취미생활 등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것 아닌가. 기도를 잠시 후 아니면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로 백성을 고치셨다. 삶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 기도는 그분의 모든 것이었다.

기도의 부재는 영적인 파멸이다. 스스로 기도생활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배우야 한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기도

에 대해 탐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팀 켈러는 기도를 배우려면 성경을 펼쳐라!고 조언한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참 기도를 배우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팀 켈러는 기도는 미술이나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나의 성공,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팀 켈러의 기도〉를 읽다보면 어느새 기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난다. 기도



청소년 문제의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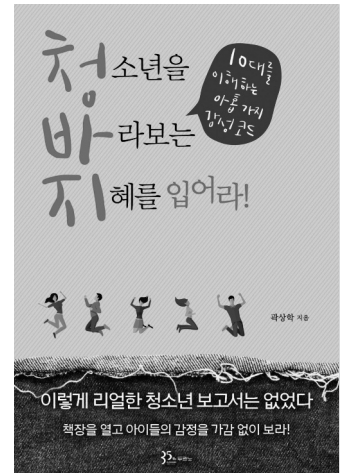
곽상학 저 | 두란노 | 10,000원

청소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 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어라〉의 저자 곽상학 목사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곽상학 목사는 국어교사이자 청소년 담당 목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 중국어 교사,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상담교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의 모범교사’, ‘수업 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책에는 그가 실제로 만났던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청소년들과의 일화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정한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저자의 성장기는 물론 아이들의 욕, 성, 학교 폭력 등 현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과 없이 소개한다. 알지 못했던, 그리고 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이 책 속에 담겨있다.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1 : 엘리야의 승천

어릴 적 자주 부르던 찬송가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다.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이렇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엘리야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흔히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셨다’ took him이다).

왜 하나님이 이 두 사람만큼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리고 가셨을까? 먼저 에녹을 보자.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으로 365년을 살았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다.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벌을 받아 오래 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창 5:22, 24 두 번 언급).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에녹에 대해서 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었고 경건한 삶이었다는 뜻이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 그래서 히브리어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한다(히 11:5).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

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창 3:23),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았지만(창 3:16), 에녹은 오히려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가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삶이었으리라.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주의 사슬을 끊는 열쇠다.”

죽지 않고 하늘로 간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이유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당시 바알에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바알이 생명의 주가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 위대한 모세조차 죽었지만(그러나 어떤 유대 문헌은 모세가 승천했다고 말한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것은 엘리야가 탁월한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예수님이 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하실 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제치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승천한 엘리야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5-6).

이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

기 전에 보낼 선구자로 생각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언서를 읽은 후 기도서를 통해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 다윗 왕국을 통하여 그가 속히 와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선구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 자신인 것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장차 할 일에 대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눅 1:17)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바로 말라기 4:6에서 다시 올 엘리야가 할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암시하셨다(막 9:11~13).

실제로 마가복음 1장에 묘사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사역은 엘리야와 흡사하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왕하 1:8).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엘리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또 광야와 요단강은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다(왕상 19:3~18, 왕하 2:4~11). 신약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 뒤에 오실 메시아,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